

Project Subject : 공간 공유 서비스(Lookation)

맷음말

Version 1.0

작성자 : 권 소 윤, 김 승 범, 김 일 웅
안 혜 지, 조 윤 상, 진 영 은

Team : **PFinder**

맺음말

김승범(팀장)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개월이 지나... 최종 발표를 끝으로 파이널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니 프로젝트를 함께했던 나날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리더십도 없으며, 실력도 부족한 저에게 팀장 자리를 추천해준 학우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팀장을 맡으면서 책임감과 과감한 결정력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가 겹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프로젝트 진행 자체가 힘든 환경이었지만, 제 말에 귀기울여주며 부족한 역할 분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팀원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는 내내 항상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었으며, 시간의 압박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폐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며, 배려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었던 프로젝트 과정이었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소소한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으며,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어갈 무렵 결과물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좀 더 성장한 개발자가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업으로 가서도 서로 자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조언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호진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소윤

무더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약 6개월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처음에 어색했던 공기 속에서 한 명씩 주뻗주뻗 앞으로 나와 자기소개를 했던 기억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다같이 힘을 내어 파이널 프로젝트까지 무사히 끝마칠 수 있게되었습니다. 온택트로 진행된 만큼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였기에 하나의 결과물을 오롯이 창출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처럼 이 끝은 기나긴 여정을 위한 출발점일 것입니다. 그 출발점에 함께 선 F반 친구들과 출발선에 설 수 있게끔 도와주신 김호진 강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조운상

비대면 수업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6개월이라는 짧다면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배워 혹여나 채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부담 속에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조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기획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어찌나하는 초조함과 불안감도 많았지만, 팀원 간의 믿음과 배려 덕분에 갈등 없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 프로젝트로 인하여 6개월간의 수업내용이 실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어떤 경우에 써야할지를 몸소 느끼고 우리들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웅

이전의 세미프로젝트에 대한 경험때문인지 파이널 프로젝트라는 문턱을 쉽게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현실로 다가왔을 때, 실무에서 어떤식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현하는지, 문서 작업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작성되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원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나만의 대응능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부족한 실력으로 6명의 팀원이 모두 합심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발표 및 시연 때 눈으로 보고, 개발자가 매번 막막한 벽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맡은 프로젝트를 끝마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력이지만, 파이널 프로젝트를 통해 내가 어떤 업무에 강하고 약한지의 수준을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개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한 발 나아간 것 같습니다.

진영은

파이널 프로젝트를 끝으로 길게 느껴지기만 했던 5.5개월의 교육이 끝이 났습니다. 강의 첫날, 강사님께서 “5.5개월은 생각만큼 길지 않다.”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강의 초반에는 자바 기본 개념도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벌써 5.5개월이 지나 맺음말을 쓰게 되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가버린 시간 속에서 그래도 포트폴리오라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규모도 크고, 아마도 혼자 했으면 절대 완주하지 못했을 목표였을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도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었겠지만, 모두가 우선순위를 프로젝트로 맞추고 잠을 줄여가며 구현에 집중했습니다.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과 집중을 쏟아낸 결과, 이렇게 모습을 갖춘 프로젝트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이 프로젝트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준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도 앞게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했던 경험, 깊게는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다양한 접근방식과 생각들이 실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개월동안 투자했던 시간들과 부딪혀본 다양한 시도들이 추후 업무를 하며 다양한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지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한 앞선 걱정을 했었던 때가 아직도 선명한데, 맺음말을 쓸 시기가 왔습니다.

“시원 섭섭하다”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일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쫓 회상하다 보면 무조건적인 즐거움만 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기획과 구현 모두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발생하며 아쉽지만 포기해야 하는 것과 힘들지만 덧붙여 추가해야 할 것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생겼습니다.

각자 좋은 아이디어가 많더라도, 내 생각만 가지고 팀이 굴러가는 것이 아님을 느꼈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팀을 꾸리며 팀의 일원이 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긍정적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 프로젝트가 누군가 보았을 때 완벽하지 않은 상태더라도, 다음 걸 시작했을 때, 이미 벽에 부딪혀봤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더 나아지는 우리를 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슬아 작가의 인터뷰 중 빛나는 재능으로 단 한 번 완벽한 뭔가를 보여주고 사라지는 것으로는 누구도 먹고 살 수가 없다. 직업인으로서의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신비는 매일의 반복 속에 있다. 꾸준히 일하며 우리는 꾸준히 다시 태어난다. 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결코 유일무이한 주제도, 기능도 아니지만, 팀원들의 앞으로의 나날에 좋은 시작과 꾸준히 일하며 꾸준히 다시 태어나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프로젝트에서 시간 지식 능력 그리고 애정을 쏟은 F 반 식구들과 김호진 강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